

“간화선 잠재력 무한하다”

실상사서 선우논강 간화선·위빠사나 장단점 열띤 토론

“발심·인가스승 부재가 문제일뿐”

“간화선 자체가 아닌, 발심(發心)과 교육체계의 부재가 문제일 뿐이다.”
2월 25일 밤 전북 남원 실상사.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란 주제로 제7차 선우논강(대표 철오)이 열린 화엄학림 강당에서는 수좌들과 학승 100여명이 두 수행법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논쟁에서 참석자들은 간화선이 최상승의 수행법이라는 데는 동감하면서도, 교육체계와 발심 부재의 수행풍토에 대해서는 개인의 여지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전국선원장회의 회장 해국 스님(제주 남곡선원장)은 “간화선이 ‘힌두화되었다’거나

‘어렵다’는 등의 비판은 간화선을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은 데서 나온 단견”이라며 “이해가 아닌 체험으로 파악되는 간화선은 가장 잘 갖춰진 수행체계로 제대로 발심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발제를 통해 간화선과 위빠사나 모두 가장 빠르고 간명한 최상승의 수행법이라는 데 동감하면서도, 선지식의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수행풍토를 비판했다. 각묵 스님은 “한국 간화선은 불성, 여래장, 참나 등 힌두이즘적 개념인 아트만(자아)이라는 대상을 세우고 그것과 하나되는 수행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권위의 원천인

인가의 법맥도 끊어졌기에 이제 간화선의 권위를 인가가 아닌 부처님 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거셌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 인경 스님은 “일부의 잘못된 간화선 참구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간화선이 힌두이즘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가는 수행의 점검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이는 위빠사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좌들은 특히 인가 문제와 관련, “한국 불교사에 존재했던 큰스님들의 깨침을 부인하는 발언은 위험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간화선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행정도를 세세하게 지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논쟁의 사회자인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람

수행원장)은 “매회 9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좌들이 정진하는 구도열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집결된 수행력을 보여준다”며 “교육체계 확립 등 방향성만 잡아주면 간화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간화선 수행의 사회적 회향을 통한 참여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세계적 인 전성위기에 불교하고 불교가 짐목을 지키는 현실을 꼬집고, “구도심과 보현행은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최근 언론의 여과되지 않은 ‘간화선 위기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간화선을 정점으로 위빠사나, 열불, 간경 등 다양한 수행방면에 대한 체계화와 수행지침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18편**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2월 26일 총무원 집행부 및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복재완 기자

31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시대 바뀌었으니 종단도 변해야”

인선자문위 추천받아 집행부 구성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종단도 변해야 한다” “희망찬 종단, 신뢰받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언해 달라” “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누구든 함께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2월26일 현 총무원 집행부 및 선대본부 관계자들과 연이은 만나 이같은 종단 운영방침을 밝혔다. 임기 시작 3일 만이

다. 또 총무원 부·국장 인선을 위해 각 교구본사에 인재추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인사방침도 내놓았다. 이런 인사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종단 변화와 개혁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어 법장스님은 12명의 중진급 스님이 포함된 ‘총무원 구성 인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구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검토하도록 지시했

며, 이날 곧바로 각 교구에 인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새 집행부 구성은 추천 마감 시한인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장스님은 또 선거기간 중 제시했던 정책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장스님의 한 측근은 “승가 노후 대책이나 불합리한 선거법 등 시급한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원장스님께 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종단 변화와 개혁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법장스님은 2월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유효표 319표 중 1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함께 경합을 벌였던 종하스님은 140표를 얻었다. 이날 투표에는 선거인단 321명 중 319명이 참여, 9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법장스님은 당선 다음날인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해인사를 찾아가 종정 법전스님을 예방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조합, 북한산 관련 광고 안냈다

서울고속도로측 간부 찾아와 명의 빌려가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월 15일자로 일간지에 낸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재개 요구 광고와 관련해 광고가 나가기 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이 조합에 찾아왔으며, 광고비 또한 조합측에서 부담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실 한 관계자는 일간지 2월 15일 자에 ‘서울의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공사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난 광고에 대해 “우리는 그런 광고를 낸 적 없다. 우리 돈 주고 낸 것이 아니다. 서울고속도로공사측에서 찾아와 윗분들(조합측)과 상의해 이름만 빌려갔다. 우리도 신문을 보고 광고가 나간 걸 알았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백경진 전무는 “광고 내기 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과규육 부장이 찾아와 만난 적이 있지만 광고는 우리 돈으로 했다”고 밝혔다. 과 부장 또한 “만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한편 본지가 단독 보도한 북한산 관통도로 토론회 현장 실포 기사(410호 1면 참조)와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은 돈 봉투의 출처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해 법적 처벌을 행하라”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 (02)737-0090 부산 : (051)632-0064 대구 : (053)768-8008 광주 전남 : (062)375-9986 전북 : (063)255-2274 대전 : (042)489-9390 충북 : (043)258-3282 강원 : (033)643-5599 동해 삼척 : (033)521-6293 영주 : (054)634-3429 경남 동부 : (053)353-1196

지율스님의 목숨 건 단식



2월28일 부산시청 앞, 지율스님은 천막을 법당 삼아 24일 동안 물만으로 금정산, 천성산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여월 대로 여원 일곱과 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새까맣게 타들어 간 피부 빛을 제외하곤, 단식 24일째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단식을 시작할 때 대통령 당선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이 단식 21일째였던 25일 치러졌다. 그러나 당선 이후 지금까지 불교계 제1공약이었던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 백지화’ 약속 이행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7편**
그런데도 불교계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율스님의 생사를

건 단식을 보면서, 하지만 다행히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이 종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고, 서울 조계사 앞에서는 지율스님의 뜻을 이은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다년간 의사는 “단식이 20일을 넘어가면 내장이 거의 활동을 못 한다.”고 충고했다. 이쯤에서 단식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지율스님은 요지부동이다. 혈압이 낮고 맥박이 약해서 혈압검사를 하려했지만 스님은 이마저 거부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 천성산과 운명을 같이 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율스님의 거룩한 자기 희생이 우리 모두의 자랑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천미희(지방주재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북한산 관통로 백지화 등 불교공약 실천 관심

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식이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내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 여러분께 바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불교계에서는 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불교계에 제시했던 공약이 어

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산 및 금정산·천성산 관통도로 백지화 △불교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사찰 소장 비지정문화재 전면 조사 및 관리지원 확대 등 10가지를 공약으로 내놓았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환경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북한산 및 금정산·천성산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속보 호외발행 <2월24일>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남글당 영각전
부처님 몸안에서 왕성크락마사서
031)948-4440
만골도매인·남글당

축 당 선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제31대 총무원장 추대위원회